

TRANS- HUMANITIES

Title : 근대 일본의 신체와 정치: 스펜서의 ‘유기체’ 개념 수용 연구
Body and Politic in Modern Japan: The Transmission of
Spencer’s “Organism” Concept to Japan

Author(s) : 김태진 (Taejin KIM)

Source : *Trans-Humanities*, Vol. 9 No. 2 (2016), pp. 107–40.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근대 일본의 신체와 정치: 스펜서의 '유기체' 개념 수용 연구

김태진 (서울대학교)

I. 들어가며: 'organism'과 '有機'

우리는 근대 동아시아를 연구함에 있어 서구의 개념어들을 번역한 말들을 다룰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때 서구의 개념어와 그 번역어들을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가령 'organism'과 '유기체'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동일한 '쓰임'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적어도 초기에는 그 개념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불일치가 일어났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줄어들거나 없어지며 이 두 개념 간의 완벽한 동일성이 추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체'라는 말이 쓰인 곳에서 'organism'이라고 읽어내며 그 뜻을 서구식의 개념으로 등치시킨다. 물론 번역이란 이를 의식하고 쓴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둘이 항상 같을 수 없다. 이것이 같은 개념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번역이론에서 같은 경험을 전달할 표현이 존재할 수 없다는 번역의 불가능성(impossibility)과 복수의 번역문 중 어떤 번역이 원문과 같은지 결정할 근거가 없다는 번역의 불확정성(indeterminacy)이 흔히 이야기되었듯이, 번역에서 '등가성'이란 성립할 수 없다. 우리가 번역을 통해 원어와 번

역어 사이에 흔히 등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은 무엇이 같은 것인가는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결국, 번역은 같은 것이 먼저 있고 나서 교환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환행위 그 ‘자체’에서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이란 미리 존재하는 일대일의 번역어들이 존재하고 그들 사이의 등가성 혹은 동등성을 따지는 작업이 아니라, 이들에 앞서 번역행위가 존재하고 이들을 동등하게 사후적으로 같은 가치(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번역(교환)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등가라서 교환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환된 것이 등가가 된다.”(與那覇 3-4). 이처럼 번역은 다른 언어와 자국의 언어 사이의 가교의 역할을 하지만 이 다리는 언제나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저쪽(원어)과 이쪽(번역어)이 있고 다리(번역과정)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있음으로 저쪽과 이쪽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자면 번역의 문제는 원본과 복사본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다. 복사본이 얼마나 원본을 잘 베꼈느냐의 문제로 번역이 파악될 때 그것은 기껏해야 당시 그들이 어떤 개념이나 문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식으로, 혹은 잘못되었다면 오역의 결과로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단지 불만족스러운 그러나 성급한 결론만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번역 과정에서 한계에 주목하는 결론은 한 언어 맥락에서 다른 맥락으로 의미를 전달, 재구성하는 구체적 문제를 무시하게 된다(Howland 6).

따라서 번역의 기저에 숨어 있는 논리구조의 차이를 볼 필요가 있다. ‘organism’을 ‘유기체’로 번역했을 때 이 유기체라는 개념을 통해 어떤 생각을 받아들였고,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는가의 문제다. 이는 신체를 어떤 식으로 사유했는가, 좀 더 크게 보자면 생명을 어떤 식으로 사유했느냐는 보다 근원적인 논리구조의 차이를 통해 그들의 정치·사상적 특이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원래 organ이라는 말은 14세기 영어에 편입되었으며 처음에는 약기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14세기 후반에 들어서 현대적인 피아노류의 약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되었으며 이 어원은 고대 희랍의 *organon*에서 왔다. 이 말은 공구, 기계, 도구를 의미하는 말로 여기에서 두 가지 파생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첫째는 추상적인 기구(*instrument*)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둘째로 악기라는 말로 사용되었다. 15세기 초에 들어서면 *organ*이 신체 일부분에 해당하는 기관 등으로 사용되는 예가 등장한다. *organism*이라는 단어는 17세기에 등장한 신조어로 *organize*라는 동사와 관련되어 조직(*organization*)이나 사회 시스템(*social system*)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 19세기 들어서는 동물이나 식물에서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organism*이란 말은 기관으로 구성된 생물 혹은 이처럼 살아있는 것으로서 구조나 기능을 갖는 조직을 유비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의미의 *organism*이 일본에서 ‘유기체’라는 말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에도 후기 난학자들에 의해서였다. 네덜란드어로 ‘유기적’이라는 뜻의 *bewerk'tuigd*는 말과 ‘기관’이라는 뜻의 *orga'nisch*을 번역한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植學啓原』(1834)에서 보이듯 기성체(機性體), 무기성체(無機性體)와 같은 말로 번역했으나, 이후 유기체, 무기체로 정착하게 되었다. 유기체, 무기체라는 말은 『氣海觀瀾廣義』(1851-1856)에도 보이며, 일본 최초의 병리학서인 오가타 고안(緒方洪庵)의 『病學通論』(1849)에도 유기체라는 말이 실려있다(杉本 620). 이후 *organism*의 번역어로서 유기체가 등장하는 『和譯字彙』(1891)의 예를 보아도 메이지 중기에 들어서면 이 번역어는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

1. Cf. 장자. 『莊子』. 안동립 옮김. 서울: 현암사, 2010. ‘유기(有機)라는 말 자체는 전통적 용법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로 어떻게 해서 ‘기(機)자가 선택되었는지 어원은 확실하지 않다. 어원을 추측해볼 수 있는 것으로 장자 「至樂」편에 ‘萬物皆出於機, 皆入於機(만물은 모두 기(機)에서 생겨나서 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Ch. 18)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機)는 만물변화의 원인, 근원으로 파악한다. 장자 「天地」편에서는 ‘有機械者 必有機事 有機事者 必有機心 機心存於胸中 則純白不備(기계가 있으면 기계의 일이 있고 기계의 일이 있으면 기계의 마음이 있다. 가슴에 기계의 마음이 있으면 순백은 사라진다, Ch. 12)라는 말에서 기(機)를 기계의 의미로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기’(有機)라는 말 자체로 생명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로써 사회적인 것을 유추할 때 이것이 어떤 이미지를 낳는가는 서구의 의미망과는 다를 수 있다. 유기체라는 개념의 수용 문제는 독일의 블룬츨리-슈타인-헤켈로 이어지는 국권론쪽 지형이 있다. 이는 주지하듯 머리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유기적 결합체임을 강조한다. 반면 민권론에서 주로 이용했던 것은 영국의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social organism’(사회유기체) 논의였다. 이는 앞으로 살펴보는 것처럼 전혀 다른 형태의 유기체였다. 이처럼 유기체론은 근대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담론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유기체론은 사회진화론의 하위 범주로만 이해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유기체론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진화론과 반드시 결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진화론과 친연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기체론이 꼭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담론과 결합해야 할 필연성은 없다. 오히려 유기체론은 그 나름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유기체론은 독자적인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신체관 좀 더 넓게는 생명관을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유기체설 혹은 신체를 통해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은 의학사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없다(Cohen XIV-XV). 종종 유기체론은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이라거나,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사상적 잔해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체를 통해 정치를 사유하는 이러한 담론은 의학사 내지 과학사와 동떨어져서 존재하지 않으며, 신체에 대한 이해보다 조금은 늦게 혹은 빨리 나타나며, 의학과 정치학이라는 전혀 상관 없는 분과학문 사이를 매개하는 고리로 존재한다. 특히나 18세기와 19세기 사회를 유기체로 파악하는 방식은 단순히 유비나 수사학적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18세기 이후의 유기체론에서 생물학적 논의와 사회학적 논의는 구별될 수 없는 것이자, 사회는 생물 그 자체, 적어도 생물

로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서양의 유기체론 역시 이를 정치적 이론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생물학과 관련되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콩트도 지적하듯 자연철학의 중심적 시좌가 천문학으로부터 생물학으로 이동한 시기였다. 따라서 정치학을 생물학을 준거로 해서 이루어진 당시 시기의 전체적인 학지의 지형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기의 사회진화론이나 정치학에서의 신체에 대한 비유는 단순히 수사학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물학과 정치학, 생물학과 언어학 등의 관계에서 생물학이 활용되는 시기였다.

그렇다면 일본에서의 신체 혹은 생명에 대한 관점 역시 유기체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준거가 될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이 스펜서의 수용과정에서 당시 일본이 처해있는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본 논문은 보다 텍스트 내적인 접근, 즉 그들의 신체관 혹은 생명관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유기체로서의 사회: 주권은 어디에 있는가

스펜서의 사회유기체론은 근대 일본에서 사회를 신체에 비유해 사유한 담론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Howland 171-82). 스펜서는 민권론자들의 주요한 이데올로기가 된 『사회정학』(*Social Statics*, 1851)의 번역서 『사회평권론』(1884)등 저작들을 통해 ‘사회’라는 말을 유행시킨 장본인이기도 했다. 주지하듯 스펜서는 사회를 ‘유기체’(organism)로 파악한다. 일본에서도 19세기 들어 화학 등의 용어에서만 쓰이던 유기라는 개념이 1870년대 들어 요한 카스파 블룬츨리(Johann Kasper Bluntschli)나 스펜서의 organism 개념을 소개하면서 유기체라는 말이 정치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영미권에서 스펜서의 영향력은 당대 사상가 중 최고라 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메이지 헌법

발표 전까지 총 21종의 스펜서 저작이 번역되어 간행되었다. 이는 같은 시기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의 번역본 9종,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번역본 12종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였다. 그뿐만 아니라 스펜서의 저작은 도쿄대학, 게이오의숙을 비롯해 여러 학교에서 교과서로 광범하게 사용되었으며, 일본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이 앞다투어 스펜서에 게 찾아가 의견을 얻기도 했을 만큼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山下, 『스펜서と』 5-6).

그런데 스펜서의 논의는 자유민권론자의 논리적 기반이었던 것과 동시에 정반대로서 메이지 정부가 의존한 것이기도 했다.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가 평가한 ‘두 개의 혼’이라는 말이 잘 보여주듯 근대 일본에서 스펜서 수용은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는 스펜서의 논의 속에 자연법의 사상과 낭만주의적 유기체 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 상용하기 어려운 두 개의 혼이 메이지 시기 격렬히 대립한 민권론과 국권론 양 진영에 수용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두 개의 혼설은 스펜서의 논의를 ‘개인적 자유주의’와 ‘유기체설 전체주의’가 극명하게 나뉘어 전자가 전기에 후자가 후기에 받아들여졌다는 식의 논의로 진행되었다(山下, 『스펜서と』 7-10). 물론 스펜서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뿐만이 아니라 출판 당시 유럽에서도 논쟁적이었다. 즉 이후에도 스펜서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제시하듯 그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와 유기체 이론은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이라는 점이다(Vergata 197-98; Gray 1-14).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너무 편의적이고 도식적인 것처럼 보인다. 스펜서의 적자생존이라는 진화론적 철학체계가 그의 유기체설과 결합해 보수적 이데올로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해도 스펜서의 유기체론이 필연적으로 보수적 이데올로기, 가령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와 결합할 필요도 없을 뿐 아니라 이렇게 보자면 그의 사상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자유주의적 정치철학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기체라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더 부각시켜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했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우선 근대 일본에서 스펜서의 논의를 받아들인 사상가 중에 바바 다쓰이(馬場辰猪, 1850-1888)를 들 수 있다. 바바는 1882년 『자유신문』(自由新聞)에 연재한 미완성작인 『본론』(本論, 1882)에서 사회를 유기체로 비유하고 있다. 그는 천하 사물의 성질을 따지고 들어가면 두 종류, 이른바 유기체와 무기체라고 말하며, 사회란 유기체에 가까운가 무기체에 가까운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회는 성장 발달함을 쉬지 않는데, 이는 변화하지 않는 무기체와 대립한다. 이러한 ‘유기’ 개념은 스펜서에게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런데 바바는 이 유기체를 가지고 사회를 조직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한다.

신체에서 사상감각(思想感覺)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뇌수의 집합이라 하더라도 사회는 결코 이와 같을 수 없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 역시 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일신(一身)의 사상감각은 오직 신체 중 하나의 국부인 뇌수에만 있지만, 사회에서는 사상감각이 전적으로 사회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 원래 우리들이 사회를 조직하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 인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필경 인류가 그 천부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사회를 조직한다. 이로써 보자면 그 상등동물의 신체에서 목적은 사상감각의 하나의 국부에 있다. 그러나 사회의 목적은 이와 달리 원소나 인류에 있다. 우리당이 전문(前文)에서 우리들의 천부한 자유를 향유하고자 하는 사회를 조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까닭이다.

身体ニ於テハ其思想感覺タルモノハ全ク腦髓ニ集合スルト雖ドモ社会ニ至テハ決シテ此ノ如キヲ得ズ。何トナレバ愚者ト雖モ亦感覺アレバナリ。即チ之レヲ翻言セバ一身ノ思想感覺ハ唯身体中ノ一局部タル腦髓ニノミアリ

ト雖モ社会ニ於テハソノ思想感覺全ク全ク社会ノ上ニ分布スレバナリ。[...] 元來吾人ガ此社会ヲ組織セルモノハ社会ノ為ニ人類アルニ非ズハ畢竟人類ガ其天稟ノ自由ヲ享ケント欲シテ始メテ社会ヲ組織スレバナリ。之ニ因テ之ヲ視レバ彼ノ上等動物ノ身体ヨリ言フトキハソノ目的ハ思想感覺ノ一局部ニアリト雖モ社会ノ目的ハ之レト異ニシテソノ元素タル人類ノ上ニ在リ。吾党ガ前文ニ於テ吾人ガ天稟ノ自由ヲ享ケント欲スルニハ社会ヲ組織セザルベカラズト謂フ所以ナリ。(206)

사상감각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뇌수’의 집합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라는 유기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천부의 자유를 향유하는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고 천명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때 스펜서의 유기체는 개인의 민권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인용되고 있다. 사회로서 유기체는 감각이 하나의 국부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스펜서의 「사회유기체설」(Social Organism, 1860)을 번역한 이들의 관심에서도 볼 수 있다. 스펜서의 이 논문은 일본에서 1882년 야마구치 마츠고로(山口松五郎)에 의해 『사회조직론』(社会組織論)으로 번역되었다. 『사회조직론』 초판의 서문은 다음과 같다.

옛날 사람들은 심(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 혹자는 복부(腹部)에 있다고 하고, 또 혹자는 두부(頭部)에 있다고 해서 끝내 의견을 통일할 수 없었다. 이는 인신(人身)의 생리(生理)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궁리(窮理)가 정교해져 사람들 모두 이를 알 수 있게 되니 인간에게 공이 가히 크다고 하겠다. 요즈음 민간에서 주권을 말하며 혹자는 국회에 있다고 하고, 또 혹자는 군주에 있다고 하고, 또 혹자는 양자의 사이에 있다고 하니 의견이 일정하지 않다. 이 또한 사회의 생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사회의 생리를 심해(深解)해, 즉 주권이 있는 곳 역시 이로 말미암아 명확해지니 세상에 이로움

이 참으로 적지 않다. 독자 여러분이 이를 살펴 알 수 있을 것이다.

在昔人皆莫知心之所存或曰在腹部或曰在頭部竟不能一定焉蓋因人身之生理未明也至輒近窮理精覈人皆能得知之者其有功於人間洵可謂大矣頃日民間論主權曰在國會或曰在君主或曰在二者之間喋喋不一定是亦因社會之生理未明也此書審解社會之生理則主權之所存亦由是而明焉其有裨益於世寔非鮮小也看官其諒之可矣。(i-ii)

여기서 역자는 정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심(心)이 어디에 있는지 옛사람들은 알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정신이 배에 있다거나 머리에 있다거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인체[人身]의 생리’가 밝혀지지 않아서 그러한 것처럼,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은 아직 ‘사회의 생리’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말한다. 따라서 주권이 국회에 있는지 혹은 군주에게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이 양자 사이에 있는지 밝히기 위해 사회의 생리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체의 생리를 통해 사회의 생리를 밝힐 수 있다는 논리, 이 둘이 사실 동일한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해 발행된 재판 서문에서도 나타난다. 초판이 발행된 지 1년 만에 재판을 발행하게 된 과정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를 가지고 인신(人身)에 비유해 그 이해와 휴척(休戚)을 논하는 것은 학자의 상습(常習)이니 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반드시 양자 사이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와 인신을 비교해 그 유사점을 논하는 책은 옛날부터 드물게 보이는 바로 대개 부회(附會)의 망설(妄說)일 뿐이다. 따라서 이를 상세히 할 수 없음이 내가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였다. 지난해 초여름 영국의 홍유(鴻儒) 허버트 스펜서씨의 저서 *Illustrations of Universal Progress*를 읽고 “Social Organism”이라는 제

목의 사회와 인신과의 유사점을 논한 글 한 편을 얻었는데 그 논리의 정확함이 나의 결망(缺望)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夫レ國家ヲ以テ之ヲ人身ニ譬ヘ其利害休戚ヲ論スルハ學者ノ常習ナリ是レ豈ニ偶然ナランヤ必ズ二者ノ間ニ類似ノ存スルニ由ラサルヘカラズ然レトモ國家ト人身トヲ比較シテ其類似ヲ論スルノ書ハ古來罕ニ見ル所ニシテ且ツ偶之アルモ概ニ附會ノ妄說ナルノミ故ニ之ヲ詳ニスルヲ得ズ是レ子ノ常ニ遺憾トスル所ナリキ去歲ノ首夏英國鴻儒派巴爾士、斯邊鎖氏ノ著(イロラストレイション、オブ、ユニウエルサルプログ레스)ヲ閱シテ、ソーシヤルオロカニスムト題シ社會ト人身トノ類似ヲ論スルノ一篇ヲ得タリ其論理ノ精確ナル寔ニ子ノ缺望ヲ滿タスニ足ル。(i-ii)

국가를 신체에 비유하는 것은 전통적인 동양의 고전들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유사점을 논함이 대개 부회에 빠져 오류를 면하기 쉽지 않아 항상 아쉬운 생각이 들었는데 스펜서의 이 글을 읽고 논리의 정확함에 감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마구치는 어떤 점에서 스펜서의 유기체론에 매료되었던 것일까.

Ⅲ. 유기체란 무엇인가: 「The Social Organism」과 『사회조직론』

스펜서는 처녀작인 『사회정학』에서 이미 유기체에 관한 맹아적 발상을 보인다. 생물의 진화는 그 기능의 개별화(individuation)와 상호의존(mutual dependence)의 종합이라고 주장, 인간 사회의 진보 역시 이러한 분리성과 통합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회유기체의 법칙을 따른다고 말한다. 이는 찰스 로버트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의 『종의 기원』(1859)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진화론적 법칙에 따르는 나뭇의 보편적 법칙을 제시한 것이었다(鈴木 115). 그는 『사회정학』 이후 10년 가까운 세월에 걸친 사색을 통해 사회유기체를 그의 철학체계의 중심으로 삼게 된다. 그것이 「사회유기체설」이라는 논문이었다. 스펜서의 처녀작 『사회정학』의 말미에 ‘단일구조로부터 복합구조로라는 진화가 있고, 이러한 진화는 개인유기체와 사회유기체가 동일하다라는 인식’이 보이지만, 그의 특유의 사회유기체설이 처음으로 상세히 서술된 논문이 「사회유기체설」이었다(山下, 「ハーバート・スペンサー」 137-44). 스펜서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회유기체라는 개념이 진화론적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에서 이미 함의하고 있는 바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제작(manufacture) 혹은 인공적인 배치(artificial arrangement)와 같은 개념을 배제함과 동시에, 자연적인 발전(natural development)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사회정학』 중에서 간단히 표현되었는데, 그사이에 진보해 이제서야 조심스러운 형태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주장하는 핵심적인 사실은 사회유기체가 개체유기체와 본질적인 특징 면에서 같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성장한다는 것, 그리고 성장하면서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 복잡해지면서 그 부분들은 더욱 많이 상호의존적이 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은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단위의 생명보다 더 길다는 것이다. 사회유기체와 개체유기체 둘 다 이질성(heterogeneity)의 증가에 따라 통합(integration) 역시 증가한다.

That the conception of the Social Organism is an evolutionary one, is implied by the words; for they exclude the notion of manufacture or artificial arrangement, while they imply natural development. Briefly expressed in *Social Statics*, and having grown in the interval,

the conception was now to be set forth in an elaborated form. The leading facts insisted on were, that a social organism is like an individual organism in these essential traits: that it grows; that while growing it becomes more complex; that while becoming complex its parts acquire increasing mutual dependence; and that its life is immense in length compared with the lives of its component units. It was pointed out that in both cases there is increasing integration accompanied by increasing heterogeneity. (Spencer, *An Autobiography* 55-56)

여기서 유기체로서 사회는 성장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스펜서에게 사회와 개체라는 유기체의 본질적 공통점은 성장한다는 점, 성장하면서 복잡해진다는 점, 복잡해지면서 부분들이 더 많이 상호의존적이 된다는 점이다. 스펜서는 집합적 신체로서 정치체를 설명하는 사상의 역사 속에서 그의 유기체론을 정립하고 있다. 그는 정치체(body politic)를 문자 그대로 사용, 국가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a living organism)로서 유비해 정치체를 말한다.

사회와 일반 유기체 사이에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설은 얼마간의 고인이 생각하던 바로, 고서에서 왕왕 보이는 바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설은 망상을 면할 수 없는 것으로 어찌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으랴. 당시 이 양자 사이의 존재하는 진실한 유사를 식별할 수 없었던 까닭은 아직 생리학이 미개했기 때문으로, 특히 최근 동학에 적용하는 개괄법 즉 만물로부터 일정의 이치를 검출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諸テ社會ト一般ノ有機體トノ間ニ類似ノ存在スルヲ說ハ少シク古人ノ抱持スル所ニシテ古書ニ於テ往々見ル所ナリ然レドモ此等ノ說タルヤ妄想ヲ免レ

ザルモノニシテ豈ニ確實ナルモノト謂フヲ得ンヤ蓋シ當時二者ノ間ニ存在セル眞成ノ類似ヲ識別シ能ハザル所以ノモノハ生理學ノ開ケザルニ因ルモノニシテ殊ニ輓近同學ニ適用スル概括法即チ萬物ヨリ一定ノ理ヲ檢出スルノ法ヲ知ラザルカ故ナル可シ。(斯邊鎖 20-21)

여기서 ‘사회’라 번역한 말은 스펜서가 ‘body politic’이라 쓰고 있는 말이다. 그는 정치체(body politic)와 살아있는 개인 신체(living individual body) 사이의 유비(analogy)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그는 유기체로서 개체적 유기체(individual organism)와 사회 유기체(social organism)의 공통점을 발견한 사유들의 선구자로 플라톤과 흄스를 꼽고 있다. 그러나 스펜서는 플라톤과 흄스의 논의가 ‘구성상’으로는 사회와 인체의 유사성을 지적하지만 ‘연혁상’으로는 기계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앞서 자서전에서 밝힌듯이 사회를 인공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스펜서의 반론이었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신체와 사회 사이의 유비가 그 동안 모호하고 다소 추상적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는 생리학(physiological science)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는 파악한다. 기계론적 정치체라는 관점에 대해 비판한 스펜서는 새로운 생리학의 발전에 따른 결과로 사회와 일반 유기체 사이의 유사성을 네 가지 제시한다. 즉 유기체는 성장한다는 점,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한다는 점, 각 부분의 활동은 다른 부분의 활동에 의지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는 점, 부분에 변경이 있다 해도 전체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이 개체와 사회유기체의 공통점이다(斯邊鎖, 1882, 32-34).

물론 유기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유기체가 아니며, 사회라고 해서 모두 같은 사회는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시사회는 하등동물과 마찬가지로 각 부분들이 서로 의존하지 못하고 고립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분할하거나 그 ‘요부’(要部)를 제거해도 해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개명사회는 분할하거나 요부를 제거하면 고등동물이 그런 것처럼 반드시 다

른 것에도 영향을 미쳐 분란을 일으키거나 파괴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원시사회가 분리가능한 사회로서 그 수명은 오래 유지할 수 없는 반면 개명사회는 분리가 쉽지 않아 오래 유지될 수 있다(斯邊鎭, 1882, 36-38). 이처럼 고등동물과 개명사회의 공통점은 그것이 보다 분리 불가능하며 상호연관적이라는 의미에서 더욱 유기적이라 파악된다. 여기서 보든 스펜서에게 유기적 생명이라는 의미는 각 부분이 서로 긴밀한 의존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이며 이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스펜서는 사회로서의 유기체와 개체로서의 유기체 사이의 차이점 역시 밝히고 있다. 첫째, 사회는 특정한 외형적 형태는 갖지 않는다. 둘째, 개체유기체를 구성하는 조직은 영속적인 일체를 이루고 있지만, 사회의 제요소는 일체를 이루지 않고 지표 혹은 부분에 산재하고 있다. 셋째, 개체유기체의 여러 단위는 많은 경우에 일정의 장소를 점하고 있지만, 사회유기체의 여러 단위는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넷째, 동물체에서는 특수한 조직만이 감정을 부여받았음에 반해, 사회유기체에서는 전 구성원이 감정을 부여받았다. 이때 스펜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는 감각을 갖는 세포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네 번째 차이이다. 그는 생물에서는 감각을 갖는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로 나뉘지만, 사회에서는 모두가 감각을 갖는다고 말한다. 생물은 '신경'(nervous system)을 통해 부분의 쾌락이 전체의 쾌락과 연결된다. 하지만 사회유기체는 일반 유기체와 다르다.

그러나 이에 관해 사회와 일반 유기체 사이에 자못 반대되는 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 유기체는 각 세포가 상쾌한지 아니한지가 신경의 상쾌 여부와 관련되어 신경이 상쾌하면 각 세포가 모두 상쾌함을 느끼고 신경이 상쾌하지 않다면 각부 모두 불쾌를 느낀다. 반면 사회는 세포 모두 감각력을 갖고 있어서 전체에서 이를 갖지 않기 때문에 각 세포의 고통이 전체의 고통에 관계함이 극히 적다. 고로 일반 유기체에서는 전체의 명맥은 주로 각 세포의 수명을 따른다. 사회에서 각 세포의 수명은 주

로 전체의 수명을 따른다. 사회가 일반 유기체와 닮지 않은 한 가지로 항상 우리의 주의함을 요하는 것이다. 정부를 건설하는 목적은 인민을 보호하는 것으로 정부가 쓸데없이 사회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인민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것은 이성이 용인하지 않는 바는 이 이치에 기초하는 것이다.

茲ニ社会ト一般ノ有機體トノ間ニ頗ル反對スル所アルヲ見ル可シ倍テ一般ノ有機體ニ於テハ各細胞ノ快爽如何ト神經統ノ快爽如何ニ因ルヲ以テ神經統快爽ナレバ各細胞皆快爽ナルヲ覺ヘ神經統快爽ナラザレバ各部悉ク不快ヲ覺ユレト社会ニ於テハ細胞毎ニ感覺力ヲ有スルノミニテ全體ニ之ヲ有セザレバ各細胞ノ苦樂全體苦樂ニ關スルヲ極メテ少ナリ故ニ一般ノ有機體ニ於テハ全體ノ命脈ハ主ニシテ各細胞ノ命脈ハ從ナリ社会ノ一般有機體ニ似ザルノ一點ニシテ常ニ余輩ノ注意センヲ要スルモノナラズヤ夫レ政府ヲ建設スルノ目的ハ人民ヲ保護スルモノニシテ政府ノ徒ラニ名ヲ社会ノ公益ニ假リテ人民ノ幸福ヲ犠牲ニ供スルヲ正理ノ容サルハ蓋シ此理ニ基クモノナリ。(斯邊鎮, 1882, 49-50)

여기서 감각기관이 사회 전체에 퍼져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 유기체에서 감각이 ‘독점화’(monopolize)되어 있어 모든 부분의 복지가 ‘신경 시스템’(nervous system)에 종속되기 때문에 부분은 전체에 통합될 수밖에 없다. 반면 사회의 구성원은 개인의 의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는 통일적 의식을 갖지 않는다. 이처럼 인민의 행복이 사회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될 수 없는 것은 사회라는 유기체의 특성이 일반 유기체와 달리 각 세포가 모두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신체 중에서 감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단지 머리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 모두가 감각을 할 수 있다는 발상 속에서 ‘사회적인 것’의 특징으로서 개체 중심적, 자율적인 상이 그려지고 있다.

Ⅳ. 의회와 두뇌의 유비

스펜서의 사회와 생물 사이의 유사성은 국회와 두뇌의 기능간의 비교로 까지 나아간다.

고등 동물을 특징짓는 가장 발달한 신경절(ganglia)은 시스템의 각 부분으로부터 전송된 다양한 감각들을 해석하고 종합하여 부분들을 적절하게 다루어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본성(nature)이다. 마찬가지로 가장 발달한 사회를 특징짓는 가장 발달한 입법체는 모든 계급과 지방들의 바람들을 해석하고 종합하여, 이를 일반적인 바람과 조화시켜 법을 만드는 것이 본성이다. 우리는 두뇌(brain)의 역할을 육체적, 지적, 도덕적 생활의 이익을 평균화(averaging)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좋은 두뇌란 각 부분의 이익에 맞는 욕구들이 균형을 이루고, 각각의 이익이 지시하는 행위가 부분 중 어느 누구도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회의 역할 역시 공동체 내의 다양한 계급의 이익을 평균화하는 것이다. 좋은 의회란 각각의 이익에 답하는 정당들이 균형을 이루고, 그들의 입법이 각 계급으로 하여금 나머지의 주장과 가능한 일치하도록 하는 기관이다.

And as it is in the nature of those great and latest-developed ganglia which distinguish the higher animals, to interpret and combine the multiplied and varied impressions conveyed to them from all parts of the system, and to regulate the actions in such way as duly to regard them all; so it is in the nature of those great and latest-developed legislative bodies which distinguish the most advanced societies, to interpret and combine the wishes of all classes and localities, and to make laws in harmony with the general wants. We may describe the office of the 'brain as that of

averaging the interests of life, physical, intellectual, moral; and a good brain is one in which the desires answering to these respective interests are so balanced, that the conduct they jointly dictate, sacrifices none of them. Similarly, we may describe the office of a Parliament as that of averaging the interests of the various classes in a community; and a good Parliament is one in which the parties answering to these respective interests are so balanced, that their united legislation allows to each class as much as consists with the claims of the rest. (Spencer, "The Social Organism" 302-03)

『사회조직론』에서는 이 머리와 의회의 비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대뇌는 천서만단(天緒萬端)의 사고(考思)를 발출하는 곳으로 그 일사일고(一思一考)는 모두 인신전체의 이해득상(利害得喪)에 관계해 참으로 신경에서 추요(樞要)의 지위를 점유하게 된다. 고로 우리는 그 직무로서 지(智)인(仁)용(勇) 기타 제덕의 이해를 균일하게 해 피차 경중이 없도록 용무를 이루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고로 대뇌가 건강하다면 사람의 행위로서 지에 치우쳐 인을 잃고, 혹은 용에 치우쳐 지를 잃는 일 없이 제덕을 겸용해 과실에 빠지지 않게 된다. 또 국회는 천서백단의 의논이 분기(紛起)하는 곳으로 그 일의일론(一議一論)은 실로 사회전체의 이해득실에 관계해 정부의 구조에서 추요의 지위를 점유하게 된다. 고로 우리는 그 직무로서 사농공상의 이해를 평등하게 해 피차 경중이 없게 용무를 이루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고로 국회가 선미하다면 사(士)에 손해가 있어도 농부에게 이익이 되는 율령을 만들고 혹은 상인에게 이익이 있어도 장인에게 해가 있는 법률을 정함 없이 상호 양해 가능하면 이를

양해해 각자의 이해를 균일하게 해 공정무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夫レ大脳ハ天緒萬端ノ考思ヲ發出スル所ニシテ其一思一考ハ皆ナ人身全體ノ利害得喪ニ關シ眞ニ神經統ニ於テ樞要ノ地位ヲ占有スルモノナリ故ニ余輩ハ其職務ヲ以テ智仁勇其他諸徳ノ利害ヲ均一ニシ彼此輕重ナカラシムル用務ヲ爲スモノト解釋スルヲ得可シ故ニ大脳健康ナレバ人ノ行爲ヲシテ智ニ偏シテ仁ニ失シ或ハ勇ニ偏シテ智ニ失スルヲナク其諸徳ヲ兼用セシメ以テ過失ニ陥ルナカヲシムルモノナリ又國會ハ天瑞百端ノ議論紛起スル所ニシテ其一議一論ハ悉ク社會全體ノ利害得失ニ關シ政府ノ構造ニ於テ樞要ノ地位ヲ占有スルモノナリ故ニ余輩ハ其職務ヲ以テ士農工商ノ利害ヲ平等ニシ彼此輕重ナカラシムル用務ヲ爲ス者ト解釋スルヲ得可シ故ニ國會善美ナレバ士ニ損アリテ農ニ益アル律令ヲ設ケ或ハ商ニ利アリテ工ニ害アル法律ヲ定ムルヲナク相互ニ讓ル可キハ之ヲ讓リ各自ノ利害ヲ均一ニシ公正無私ノ法律ヲ制定スルモノナリ。(斯邊鎖, 1882, 106)

대뇌와 의회는 직무상 유사한데, 둘 다 사고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체의 이해득실을 판단한다. 번역본에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점은 그들이 국회 개설의 정당성을 가지고 오기 위해 스펜서의 논의를 끌어오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펜서와 번역본에서 보이는 이러한 논리는 다양하게 분기하는 의견들을 종합하는 대뇌=의회의 통일적 기능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는 앞서 사회와 일반 유기체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사상감각을 하는 것이 뇌수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개별 세포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스펜서의 논의와 모순되는 것은 아닐까. 스펜서와 논쟁을 벌인 진화론자 토마스 헉슬리(Thomas Henry Huxley)는 이러한 스펜서의 내적 모순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는 스펜서의 철학 안에 국가의 기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와 이 유기적 은유가 완전히 반대됨을 주장한다. 즉 스펜

서가 「사회유기체론」에서 뇌가 개인의 생명, 신체, 지성, 도덕, 사회의 각 각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공동체 내의 다양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각 개별 세포들의 자립적 역할을 강조하는 스펜서의 자유방임주의 철학과 상호모순이라는 것이다.²

그러나 헉슬리의 이러한 비판은 스펜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스펜서가 뇌를 강조할 때 이는 각 세포의 감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번역본에서는 대뇌의 지각을 오관(五官)의 신경과 구별해 대지각(代知覺)으로서 설명된다.

대뇌는 외물로부터 직접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간접적으로 이를 받을 뿐인데 이는 이미 성리학(性理學)상에서 보통의 진리이다. 고로 대뇌의 지각을 오관신경절(五官神經節)의 지각과 구별하기 위해 이를 대지각(代知覺)이라 부르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 영국의 하원의 직무를 관연하기 위해서 하원을 대의원(代議院)이라 칭하는 것은 참으로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상의(相議)하는 바 이해득실은 인민 스스로 출석해 이를 명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대의사(代議士)로서 이를 대언(代言)하게 하는 것으로, 국회가 대뇌와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諸テ大脳ハ外物ヨリ直ニ感動ヲ受クルモノニ非ス唯間接ニ之ヲ受クルモノタ

2. 헉슬리는 스펜서의 자유방임주의에 반대해 사회의 복지를 위한 정부기능, 특히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주장한다. 여기서 헉슬리는 스펜서의 사회유기체와 생물유기체의 유추에 관한 주장을 비판, 생물학적 유추보다 화학적 유추를 주장한다. 이 논쟁은 *Fortnightly Review*에 헉슬리가 “Administrative Nihilism”이라는 논문을 실어 스펜서의 주장을 비판, 스펜서가 다음 호에 “Specialized Administration”이라는 글을 실어 반박하고 있다. Cf. Yamashita Shigekazu [山下重一], “Habato Supensa no Shakai Yukitaisetsu” [Herbert Spencer’s Social Organism, 허버트·스펜서의 社会有機體].

ルハ是レ既ニ性理學上ニ於テ普通ノ眞理ナリ故ニ大腦ノ智覺ヲ五官神經節ノ智覺ト區別スルガ爲メニ之ヲ代知覺ト稱スルモノナリ然ラバ我が英國ノ下院ノ職務ヲ判然タラシムルガ爲メニ下院ヲ代議院ト稱スルハ眞ニ深意ヲ包含スルモノト謂フ可シ何トナレバ下院ニ於テ相議スル所ノ利害得失ハ人民自ラ出席シテ之ヲ明言スルニ非ス唯代議士ヲシテ之ヲ代言セシムルモノニテ乃チ國會ノ大腦ニ類似スル一點ナレバナリ。(斯邊鎮, 1882, 108)

오관이 신경을 가지고 직접 감각하지만 대뇌는 이러한 감각들의 ‘재현’(representation)을 받아 대리로 감각한다. 이는 정치에서 ‘대의체/대의기관’(representative body) 개념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대리로 인민들이 바라는 바를 발언하는 존재다. 대뇌가 직접 감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해서 감각하는 기관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 역시 인민들의 욕구를 대리해서 수행하는 존재다. 이처럼 대뇌는 신경이 직접 느끼는 것과 달리 ‘대지각’으로서 정치에서의 ‘대의사’의 기능을 한다(斯邊鎮, 1882, 112). 스펜서에게 대의 민주주의는 각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수단이었다(Gray 105). 그러나 분명한 점은 앞서 지적했듯 스펜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등자유 법칙’으로 사회는 단위로서 개인들의 행복이 유일한 목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개인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만을 허용하는 자유방임적(laissez-faire) 유기체론이었다. 그런 점에서 스펜서에게 대리로서의 의회 개념은 국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를 위한 대리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그의 전체 논리와 모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유기체에 대한 논의는 그의 사회이론을 집대성한 『사회학 원리』(*Principle of Sociology*, 1876)에서 이어진다. 그는 ‘군사형 사회’(the militant type of society)와 ‘산업형 사회’(the industrial type of society)를 구별하며 ‘평화로운 산업형 사회의 특징은 중앙권위가 비교적 약하고, 개개인의 사적 활동에 거의 전적으로 간섭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중앙집권화된 통제, 통일된 행동이 더욱 유기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면 스펜서에게도 군사형 사회가 산업형 사회보다 더욱 유기체에 가깝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사회유기체설은 사회를 가치적으로 개개인의 상위에 두는 '실체개념'이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동관계를 의미하는 '관계개념'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강제적 협동에 기초한 군사형 사회보다도 자발적 협동에 기초한 산업형 사회야말로 더욱 고도의 사회유기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스펜서에게 군사형 사회가 '두뇌'가 지배하던 시기라면 이는 아직 산업형 사회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로 산업형 사회에서 두뇌는 점차 위축되어 흔적으로만 남는다. 두뇌와 대비해 그는 산업 체계를 자율적인 소화기관으로 유비한다. 동물의 진화는 신경계의 승리로 향하지만 사회 유기체의 진화는 소화기관의 승리로 향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슈워츠 124). 군사형 사회에서는 사회의 유지가 주요한 목적인 한편 각 성원의 보호는 이차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산업형 사회와 다르다. 이때 군사형 사회는 권위에 대한 복종이 최고의 덕이 되며, 주변의 적대적인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는 집권화되고 통제적 조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든 부분이 완전히 종속되어 '강제적 협동'(compulsory cooperation)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개체유기체에서도 외부적 조직이 주요한 신경중추에 완전히 종속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펜서는 말한다. 반면에 산업형 사회는 국민의 의지가 최고로, 지배자는 단순히 국민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사회의 다양한 활동으로 행해지는 '자발적 협동'(voluntary cooperation)이 이뤄지며, 개체유기체에서 부양적 조직과 마찬가지로 통제장치로서가 아닌 대리적, 분권적 권력을 통해 구성된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이념형으로서 이처럼 두 가지 사회로 확실히 구별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사회진화에 따라 군사형의 우위로부터 산업형의 우위로 변화한다고 스펜서는 보았다(山下, 「ハーバート・スペンサ

一」 167-77).

이러한 대비는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에게 받아들여져 그는 『장래의 일본』(將來之日本, 1886)에서 ‘무비주의’-‘귀족사회’-‘완력사회’와 ‘생산주의’-‘평민사회’-‘평화사회’의 대비 속에서 ‘군비주의’로부터 ‘생산주의’로의 역사적 진화를 설명한다. 그가 군비주의 사회에서 결합은 강박의 결합이고, 생산주의 사회에서 결합은 자유의 결합으로 구별하고, 무비기관이 발달한 사회를 불평등이 지배하는 귀족적 현상임에 비해 생산기관이 발달한 사회를 평화적, 평민적이라 할 때(徳富 56) 이는 정확히 스펜서의 구도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앞서 보았듯 스펜서는 국가를 개인을 위한 ‘인위적’ 기관으로 규정, 국가를 인민의 상호보호를 위한 그들의 자발적 단결의 결과물로 상정한다. 대리의 개념 속에서도 신체의 목적은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의지보다 각각의 개체적/개인적 감각을 더욱 잘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신경’이 위치한다. 이는 개체를 강조하면서도 중앙의 집권화를 부정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스펜서의 고민의 결과였을지 모른다. 따라서 스펜서의 이른바 ‘이중의 혼’은 그의 유기체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개인주의적 혹은 국가주의적 모습의 스펜서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에서 스펜서의 유기체 개념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토쿠토미가 청일전쟁 이후로 급격하게 전향하게 되는 사실에서도 잘 보여지는 바다. 그가 『대일본팽창론』(大日本膨脹論)에서 일본의 국가생존을 위해 그리고 일본이 새롭게 점한 지위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 군비 확장을 금지해서는 안 되고, 무비기관의 확장과 함께 생산기관의 발달을 ‘병행병진’시켜야 한다고(徳富 272) 말할 때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 넘어가지 못한 당시의 일본의 상황을 원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스펜서의 신체가 수평적이면서 각 개체들의 자율성을 보완하는 신경시스템의 강조를 통해 개체주의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할 때 이러한 논리가 일본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신체관의 불일치

역시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을지 모른다.

V. 세포설과 정치사상: 피르호의 세포 국가론

그런데 벤저민 슈워츠(Benjamin Schwartz)도 지적하듯 스펜서의 논리에는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그는 사회 유기체와 생물 유기체 사이의 유비를 상세히 기술하고, 통합된 신경계, 신경중추, 그리고 두뇌 자체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의 진화를 국가의 증대하는 통합으로 설명한다. 그가 제시한 생물학적 세계에서 두뇌의 끊임없는 발달과 통제력의 증강은 진화 과정의 거의 모든 목표가 된다. 이는 유기체 전체의 진화는 부분이 전체의 복지에 종속되는 정도를 점점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서도 엿보인다. 결국, 이러한 유비가 도달할 수밖에 없는 지점은 국가의 역할이 무단히 증대되는 것과 사회의 모든 하위기관이 국가의 목표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것이 스펜서를 논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그의 자유주의 철학과 유기체 이론 사이의 모순이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돌연 개체 유기체와 사회 유기체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는 쪽으로 논점을 틀고 있다. 이러한 논리적 전환은 분명 이상한 면이 있다. 생물학의 발달을 통해 일반 유기체와 사회 유기체간의 공통점이 파악될 수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 해도, 일반 유기체와 사회 유기체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정당화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펜서의 말대로 사회에는 따로 '감각중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말하자면 사회 유기체는 생물 유기체와 유사한 듯 보여도 전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들이라 할 수 있는 단위인 개인들에게 감각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생물학에서 곧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의 정치적 성향이 생물을 보는 관점에 개입된 것이라 보아야 할지 모른다(슈워츠 123-24).

스펜서가 『사회유기체론』에서도 밝히고 있듯 그의 유기체에 대한 생각

은 당시 생물학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생물학의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스펜서의 모순이라고 지적되는 바의 논리, 즉 유기체론과 개체적 자유주의는 모순되는 논리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당대의 새로운 생물학 발전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1830년대 후반 테오도르 슈반(Theodor Schwann, 1810-1882), 마티아스 슈라이덴(Matthias Schleiden, 1804-1881)등에 의해 이루어진 세포설(cell theory)의 확립일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세포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세포가 동물과 식물에 공통적인 것으로서 생명의 기초단위라고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83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근대적 생명관의 제일 요건이 되었다(鈴木 110). 모든 생명의 근본이 기존에 주장되었던 것과 같은 유기체(organism)나 기관(organs) 혹은 조직(tissues)이 아니라 개별적 세포(individual cell)라고 주장한 논의가 당시의 정치사상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주장한 의사이자 정치가였던 루돌프 피르호(Rudolf Virchow, 1821-1902)의 논의는 스펜서의 정치철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는 세포야말로 살아있는 것으로, 모든 세포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세포에서 비롯된다(omnis cellula a cellula)는 유명한 말로 학계를 뒤집었다. 이러한 이론에 따라 그는 몸 전체가 병들 수 있다는 개념에 회의적이었고, 당시의 체액병리학과 고체병리학을 ‘전제적 독재’라 부르며 개별 단위에 대한 치료를 선호하였다(운술트 361). 그는 모든 병리현상은 세포의 현상으로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세포병리학자였던 것만은 아니다. 그는 평등주의의 독일진보당을 창설해 프로이센 하원의원으로서 군비증강을 실시하려는 비스마르크에 끝까지 대립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질병이란 연구실에서의 연구뿐 아니라 사회정책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역시 그가 이후 정치적 활동에 매진하게 한 이유였다. 비스마르크의 군비증강에 쓰일 돈은 당

연히 위생사업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Otis 15-19).

그는 고등동물, 특히 인간을 복합체로서 파악, 이러한 특징이 이를 구성하는 세포들의 활동의 공동의 결과로 보았다. 이 과정에서 피르호는 사회적 은유와 유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인간의 신체를 독립적이고 협동적인 시민들의 사회로 유비한다. 명성을 얻게 된 저작 『세포병리학』(*Die Cellularpathologie*, 1858)에서 그는 생물학과 정치학을 연결지어 ‘세포국가’(Zellenstaat)라는 개념을 주장한다. 그는 인체를 동등한 능력을 갖춘 ‘세포 민주주의’(cellular democracy) 또는 ‘세포 공화국’(republic of cells)이라는 생각을 개진한다. 조르주 캥길렘(Georges Canguilhem)의 지적대로 세포라는 개념의 역사는 개인이라는 개념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세포이론과 자유주의와의 긴밀한 연관에 대해 캥길렘은 세포이론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공화주의자가 된 것인지 혹은 공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세포이론의 신봉자가 된 것인지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고까지 평한다.³

피르호는 생명의 중심이 다양해짐으로써 생명체의 통일성이 상실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비록 개별 존재들이 똑같은 능력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지만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인들의 자유국가를 구성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세포설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세포국가라는 유비는 단지 수사가 아니라 그의 생물학 이론의 핵심적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은 세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조직된 전체라는 개념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Temkin 274).

당시 피르호를 비롯해 많은 과학자들에게 현미경을 통한 관찰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가능케 해주었다고 평가된다. 이는 신체의 각 부분을 이루는

3. 이러한 캥길렘의 평가는 에른스트 헤켈(Ernst Haeckel, 1834-1918)에 대한 것이지만 오히려 루돌프 피르호에게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피르호의 철학은 정치학은 생물학의 응용이라는 말로 유명한 에른스트 헤켈로 이어진다. 그러나 헤켈은 피르호의 ‘세포-공화주의’(Zellen-Republik) 모델을 ‘세포-군주제’(Zellen-Monarchie) 모델로 확장시킨다(鈴木 162-63).

세포들이 놀랄만큼 자유롭다는 것이었다. 정자세포가 활동적인 단일 세포였다는 것이 발견되거나 백혈구의 아메바운동, 배아의 발전 등이 하나의 세포인 난자에서 반복된 세포분열의 결과라는 점들이 속속 발견된 것들이 이 시기 과학사의 새로운 발견들이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과학적 발견들이 그의 의학관을 만들었다고만 보기는 힘들다. 피르호는 생물학적 사실들을 공화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정치사상에 끼워맞추어 다세포적 유기체로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국가를 그려낸다. 물론 그가 세포설을 통해서 공화주의자가 되었다거나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세포의 특징들을 그렇게 파악하였다거나 확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자연의 연구자로서 오직 공화주의자밖에 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이들에게서도 이러한 일관성을 발견, 인체생물학에 대한 견해가 자신과 다를 경우 정치적 입장 역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처럼 그는 정치적 신념이 필연적으로 몸에 대한 과학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역으로 자신이 가진 인체관을 모형 삼아 이상사회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세울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운슬트 355). 그에게 세포이론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러한 신념을 통해 세포설을 해석한 것이었다. 세포가 각각 생명력을 가진 개체라는 이론 속에서 그는 따로 중앙에 집권화된 통제, 즉 군주가 필요 없는 신체와 정치체를 그려낸다. 이로써 단일지배라는 생명력 원리에서 떨어져 나온 통치권은 생명체의 개별 기본입자로 이양되었으며,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나 개인적 차원에서 신체를 해석하는 데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가 개체적인 것(individual)을 생각할 때 이는 완전히 독립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포들은 생명을 위해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며, 이는 사회에 있어서의 개인도 마찬가지다. 그가 비판한 것은 전체주의적 집중 형태였지 개체들의 고립된 모델은 아니었다. 피르호는 국가유기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한

다. 피르호는 국가유기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판한다. 이 용어가 목적의식적으로 수립된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만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만들어 부분들이 전체에 종속되어 국가나 사회 밖에서는 아무런 목적을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서 생각되게 한다는 것이다(운솔트 363-64). 그러나 이때 유기체가 반드시 중앙적 통제나 수직적 위계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스펜서 역시 피르호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에 명백히 반대하며 국가를 무시할 개인의 권리까지도 주장한다. 스펜서가 사회 내에서는 개별 세포들이 모두 감각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며 사회유기체의 수직적 모델을 거부한다고 할 때 피르호의 자유주의적 신체관과 정치관과 겹쳐지는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피르호와 스펜서의 연관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이 기반을 두고 있던 당시 신체에 대한 관점은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공통적인 에피스테메를 보여주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스펜서의 유기체론의 자유주의적 측면이 논리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더 나아간 형태가 피르호의 신체관/국가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논의가 당시의 신체관에 대한 논의를 배제한 채 스펜서의 정치이론에만 착목한 결과 그의 사상이 갖는 이중성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나 피르호의 논의를 볼 때 스펜서는 자유주의적 유기체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스펜서에게 유기적인 것이란 개별 세포들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그것들 간의 자유로운 협동관계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자유주의와 유기체는 상호모순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VI. 나가며: 생명관과 정치사상

스펜서의 유기체에 대한 논리는 번역본에서 거의 그 내용을 모두 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받아들인 번역자들 역시 그들이 얼마만큼

스펜서의 신체관, 생명관을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독자들이 이를 얼마만큼 이해했겠는가는 별도로 사상적으로 스펜서의 생각을 충실히 옮기고 있는 듯 보인다. 『사회조직론』에서는 간혹 생략된 부분이나 오역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스펜서의 개인적 자유주의로서 유기체 개념, 의회에 대한 대리적 개념 역시 충실히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 둘을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조직론』 서문에서 보듯 번역자들이 스펜서의 유기체 개념에 주목한 것은 국회에 주권이 있음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스펜서는 줄곧 개인의 자유를 강조, 정부를 필요악으로 설정하고 의회 입법에 대한 과도한 기대 역시 경고하고 있다. 또한 스펜서는 「사회유기체론」 후기에서 자신의 논의가 현재 영국의 사회기구와 인간 기구 사이의 특정한 유비로 오해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처음에 말한 바처럼 그러한 특정한 비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병치는 가장 발달한 정부 조직에서 개인과 사회의 비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기 부분은 번역되지 않았다. 이것이 역자들에게 개인과 사회의 특정 기구에 대한 유비가 보편적으로, 적어도 일본에서도 통용되는 것이라 주장하려고 일부러 생략한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국회개설운동에 스펜서의 논의가 중요한 전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스펜서의 유기체를 주권의 소재라는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는 의회에 있다기보다 자유로운 인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펜서의 자유주의적 사회유기체설에 입각하면 각 세포가 각각 권한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권은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다. 국가는 개인을 위해 구성된다는 점이야말로 스펜서의 철학의 특징이었다. 반면 스펜서의 사상을 받아들여 이를 활용하려 하였던 이들은 개인을 강조하는 스펜서의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주권이 군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있음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스펜서의 유기체 개념에서 강조되었던 개체적인 것을 다시 통치, 주권의 소재 문제로 환원시켜 버

린 측면이 있다. 이를 당시의 국회개설운동을 둘러싼 민권파의 의도로 볼 수 있지만 기저의 신체관의 차이 역시 하나의 요인일지 모른다. 그들은 유기체의 개념 중에서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에 주목, 이를 주권의 소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는 그들에게 당시 서양의 세포설이 의미하는 바가 곧바로 정치사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일지 모른다. 스펜서에게 보이는 유기체와 자유주의간의 이중성이라는 측면이 세포설을 기반으로 할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본에서 세포에 대한 논의는 1890년대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1890년 이전에 메이지 일본에서 세포설은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단지 사실로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세포설은 ‘발안’되어야 할 학설이 아닌 ‘발견’되어야 할 객체로서, 세포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논리구조보다 오히려 다른 무엇, 가령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차원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세포설이 갖고 있는 기계론적 사유방식, 즉 각각의 독립된 단위들로 구성된 전체라는 환원주의적 사고방식은 일본에서는 낯선 것이었다(Hayashi 115-32).

이는 스즈키 사다미(鈴木貞美)가 일본 진화론 수용의 특징 중 하나로 서구의 진화론이 바탕을 두고 있는 생명관과 이데올로기로서의 사회진화론 사이의 괴리를 들고 있는 점과 관련될지 모른다(136-42). 그 논의의 기반이 되는 생명에 대한 서구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적 과학이 과학으로서가 아니라 인생관, 세계관 수준에서 수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사상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로 볼 수만은 없다. 그것은 어쩌면 서로 다른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근대 동아시아에서 스펜서의 social organism 사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나타나는 일종의 변형과 굴절의 양상이 보인다. 그것은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기저에 깔린 신체관의 차이, 좀 더 넓게는 생명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스펜서에게 사회를 유기체로서 설명하는 논의는 단순히 유비나 은유 차원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체와 사회 양자의 구성원리는 동일한 생물학적 논리에 기반을 둔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종합철학 체계'(synthetic philosophy)는 그런 점에서 모든 분과학문을 아우르는 하나의 정합적이자 완성된 이론체계였다. 그것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차치하고 이는 당시 19세기 철학의 하나의 중요한 핵심 테마였다. 생물학은 모든 학문을 바라보는 기본적 시야 내지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회나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적용되었다. 따라서 스펜서에게 생명을 보는 관점과 사회를 보는 관점을 둘로 쪼개어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없다. 생명을 보는 관점이 사회를 보는 관점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동아시아에서의 유기체 개념의 수용 과정에서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이는 organism과 유기체라는 개념어 사이의 간극, 두 세계가 갖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일지 모른다.

Works Cited

- Baba, Tasseui [馬場辰猪]. *Meiji Bungaku Senshu* [Complete Works of Meiji Literature, 明治文学全集]. Vol. 12. Tokyo: Chikumashobo [筑摩書房], 1973. Print.
- Cohen, I. Bernard. *Interactions: Some Contacts Between the Natural Sciences and the Social Sciences*. Cambridge, MA: MIT Press, 1994. Print.
- Gray, Tim S. *The Political Philosophy of Herbert Spencer: Individualism and Organicism*. Brookfield, VT: Avebury, 1996. Print.
- Hayashi, Makoto. "Cell Theory in Its Development and Inheritance in Meiji Era Japan." *Historia Scientiarum* 8.2 (1998): 115–32. Print.
- Howland, Douglas. *Translating the West: Language and Political Reason in Nineteenth-Century Japan*. Honolulu: U of Hawaii P, 2002. Print.
- Otis, Laura. *Membranes: Metaphors of Invasion in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Science, and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9. Print.
- Schwartz, Benjamin [슈워츠, 벤저민]. *Buwa Kwonryeokeul Chajaseo*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 부와 권력을 찾아서]. Trans. Choi Hyo-Sun [최효선 옮김]. Paju [파주]: Hangilsa [한길사], 2006. Print.
- Spencer, Herbert. "The Social Organism." *The Man Versus the State, with Six Essays on Government, Society, and Freedom*. Indianapolis: Liberty Fund, Inc., 1884. 383–434. Print.
- . *An Autobiography*. Vol. 2.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04. Print.
- Spencer, Herbert [波·斯邊鎖]. *Shakai Sosikiron* [The Social Organism, 社会組織論]. 1882. Trans. Yamaguchi Macheugoro [山口松五郎 譯]. Tokyo: Matsunaga Yasudarou [松永保太郎]; Tokyo: Katou Seisichi [加藤正七], 1883. Print.
- Sugimoto, Tsutomu [杉本つとむ]. *Gogenkai* [The Sea of Etymology, 語源海]. Tokyo: Tokyo Shoseki [東京書籍], 2005. Print.
- Suzuki, Sadami [鈴木貞美]. *Seimeikan no Tankyu-jyusousuru Ikinonakade* [The Research of View of Life: In the Stratified Crisis, 生命観の探究—重層する危機のなかで]. Tokyo: Sakuhinsha [作品社], 2007. Print.
- Temkin, Owsei. *The Double Face of Janus and Other Essays in the History*

- of Medicine*.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7. Print.
- Tokutomi, Soho [徳富蘇峰]. *Tokutomi Sohoshu* [Complete Works of Tokutomi Soho, 徳富蘇峰集]. Tokyo: Tsukuma Shoho [筑摩書房], 1974. Print.
- Unschuld, Paul [운슐트, 파울]. *Uihagiran Mueosinga: Dongseoyang Chiyuui Yeoksa* [Was ist Medizin? Westliche und östliche Wege der Heilkunst, 의학이란 무엇인가: 동서양 치유의 역사]. Trans. Hong Se-yeong [홍세영 옮김]. Seoul: KungRee [궁리], 2000. Print.
- Vergata, Antonello La. “Hebert Spencer: Biology, Sociology, and Cosmic Evolution.” *Biology as Society, Society as Biology: Metaphors*. Ed. Sabine Massen, Everett Mendelsohn, and Peter Weingart. Dordrecht, th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5. 193–229. Print.
- Yamashita, Shigekazu [山下重一]. *Spencer to Nihon Kindai* [Spencer and the Modern Japan, 스펜서와 日本近代]. Tokyo: Ochanomizu Shobo [御茶の水書房], 1983. Print.
- _____. “Habato Supensa no Shakai Yukitaisetsu” [Herbert Spencer’s Social Organism, 허버트·스펜서의 社会有機体]. *Kokugakuinhogaku* [Kokugakuin Journal of Law and Politics, 国学院法学] 46.4 (2009): 135–83. Print.
- Yonaha, Jun [與那覇潤]. *Honyaku no Seijigaku—Kindai Higasi Asis Sekai no Keisei to Niryukankei no Henyo* [The Politics of Translation: The Formation of Modern East Asia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Ryukyu, 翻訳の政治学—近代東アジア世界の形成と日琉関係の変容]. Tokyo: Iwanami Shoten [岩波書店], 2009. Print.

Abstract

Body and Politic in Modern Japan: The Transmission of Spencer's "Organism" Concept to Japan

Taeji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Organicism has long been considered as a subcategory of social Darwinism. However, admitting that organicism is intimately connected with social Darwinism does not mean that there is any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organicism and authoritarian or totalitarian discourse. These misunderstandings are based mainly on the belief that organicism cannot be compatible with individualism. This alleged incompatibility, however, rests on the confusion about the viewpoints on the body. It is the aim of this article to reexamine Spencer's logic through the history of medicine. Cell theory can illustrate that independent units constitute the body in cooperation with other units without the centralization of control and the subjugation of the parts to the interests of the whole. In this view, the reception of the meaning of organism in Japan cannot be irrelevant to the conception of the body in Japan. Consequently, organism and its Japanese equivalent, "yukitai" (有機體), cannot have the same meaning and the same result. When Spencer's social organism was translated in modern Japan, Japanese translator agreed with Spencer that there is the same logic between the biological and social body. Nonetheless, Spencer's organicism rather than his individualism was appropriated to support the introduction of the parliamentary system. This discrepancy may be based on the difference of the perspectives on the body.

Keywords: Herbert Spencer, organicism, body politic, sovereignty, cell theory, organism

Taejin KIM is a Ph.D. candidate in the Department of Polit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specializes in political thought, but also has interest in various other areas, including medical thought, philosophy of the body, and critical theory of politics. He is now preparing his Ph.D. dissertation titled “Constituting the Body Politic: Body and Politics in Modern East Asia.”

teseus7@naver.com

Received: 18 April 2016 Reviewed: 6 May 2016 Accepted: 5 May 2016
